

# 단단해진 혀 2주일 넘게 아프면 암 의심해봐야

## 구강암

구강암, 음식 씹는것 부터 말하는 것까지 일상 불가능  
입안 보철물 오랫동안 불편함 느꼈다면 치과검진 필수



구강암에 걸리면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큰 불편을 겪는다. 음식을 씹는 것부터 말하는 것까지 힘들어진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환자들의 속을 까맣게 타들어간다.

구강암은 조기진단이 까다롭지만, 암을 의심해볼 만한 대표적인 세 가지 증상이 있다. 우선 잇몸과 혀, 뺨에 생긴 상처가 2주일 이상 지나도 낫지 않는 것이다.

구강 조직에 난 상처는 2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다. 재생력이 매

우 좋지 때문이다. 입 안에 난 상처나 염증이 2주일 이상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구강암을 의심할 수 있다.

잇몸과 혀, 뺨에 단단한 조직이 만져지는 것도 위험신호다. 구강 조직은 아주 부드럽다. 그러므로 무언가 단단하게 만져지면서 통증을 느낀다면 구강암 검사를 받는 게 좋다.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발치 후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것도 위험신호다. 다만 만성 치주염 환자들도 치아가 흔들리기 때문에 암이 의심되면 검사를 받는 게 안전하다.

차인호 연세대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입안에 생긴 상처나 염증이 2주일 이상 지나도 낫지 않을 때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며 "약국에서 탈락 연고를 사서 바르는 일을 반복하면 자칫 암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

했다.

구강은 소화기계 관문으로 음식을 씹고 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얼굴 일부로 첫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강에 암이 생기면 씹고 말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외모도 변한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우울증을 겪을 수 있다.

구강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담배다. 여기에 수시로 술을 마시면 암이 생길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 인간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도 발병 원인으로 꼽힌다. 보철물이나 틀니 등이 입속을 계속 자극하는 것도 구강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다. 오랫동안 입안 보철물로 불편을 느꼈다면 치과 의뢰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게 좋다.

몸이 피곤하면 입속에 흡착 크기의 궤양성 반점이 생기는 아프타성 구내



염, 입 주변에 따끔거리는 작은 물집이 발생하는 헤르페스 감염에 의한 상처가 구강 점막에 자주 나타난다. 이런 단순 구내염은 쉬거나 간단한 치료로도 회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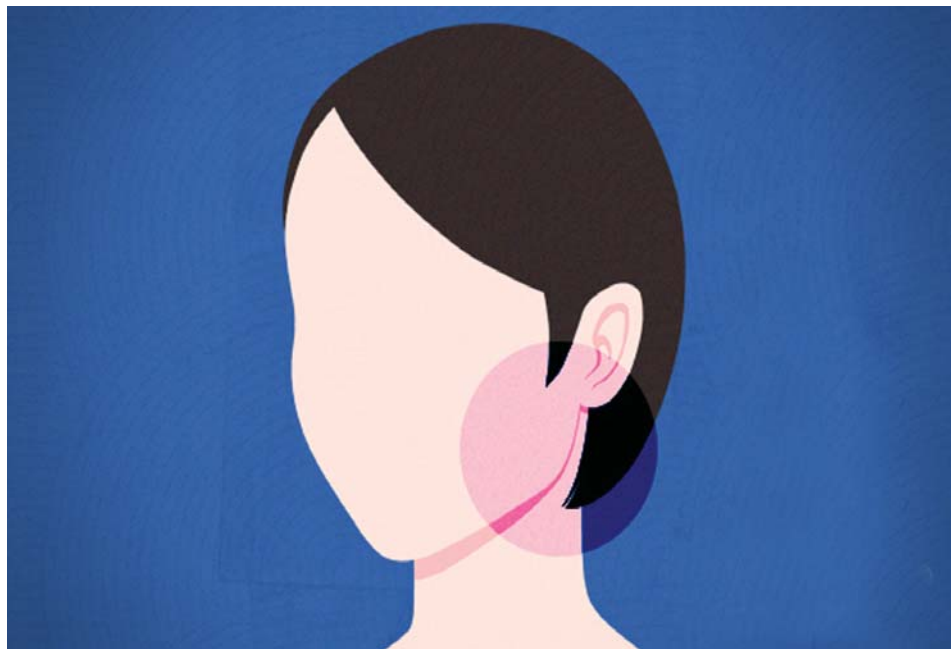
차인호 교수는 "이를 뽑은 뒤 정상적

인 치유 기간이 지났는데도 상처가 낫지 않으면 조직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잇몸과 혀, 뺨 등에 단단한 조직이 만져지는 증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 생존율 50%대 제자리걸음...조기 발견해야 턱뼈 지킨다

구강암, 관리 어려운 암종...금연·금주·치과 관리 중요



구강암 발병률은 전체 암종 중 2~3%에 불과해 낮아보이지만 20년 전과 비교하면 2배로 증가한 만큼, 관리가 어려운 암종으로 꼽힌다. 특히 5년 생존율은 56%로 매우 낮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24일 권순영 고대안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암 진단과 치료법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과 달리 구강암 생존율은 과거와 차이가 없어 그 위험이 다른 암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강암은 금연과 금주, 그리고 만성적으로 자극을 주는 치과 치료 수복물과 치주염에 대한 주기적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구강암 발생 가능성을 미리 경고하는 증상으로는 '구강백반증'이 있다. 백반증은 거즈로 문질러도 없어지지 않는 '백태'를 말하는데 그중 5~15% 정도가 구강암으로 진행된다.

백반증 환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면 구강암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구강암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구강암 의심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의 진찰과 조직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컴퓨터단층촬영(CT)나 자기공명영상(MRI)등의 추가 검사를 하기도 한다.

만약 진단을 받았다면 수술이 우선 고려된다. 경우에 따라 방사선 치료나 방사선·항암 화학 병합요법이 고려되는데, 암의 진행 상태와 위치,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행한다.

특히 구강암이 잇몸에 발생하면 바로 인접한 턱뼈를 침범하기 때문이 수술이 우선이다.

그러나 턱뼈까지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면 훗날 보철 수복에 대한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조기 발견으로 턱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기능적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차인호 연세대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다행히 요즘은 미세 혈관수술을 통한 턱뼈 재건술이 가능해졌고 임플란트가 발달해 시기가 조금 늦어도 과거에 비해 기능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차 교수는 "수술 후 턱뼈에 방사선치료를 추가로 받으면 임플란트 성공률이 낮아지고 임플란트는 아직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뉴스1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